논어 15편 위령공 29장 · 원문·풀이

子曰：「過而不改，是謂過矣。」

독음 · 자왈 과이불개 시위과의

쉬운 풀이(요약) ·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이 참된 잘못이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過 지날 과 과 / 而 말이을 이

不 아닐 불 / 改 고칠 개 개 / 是 이 시 시 / 謂 고할 위 위

矣 어조사 의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